

교과서 완전 학습,
학교 시험 완벽 대비

자습서

고등학교 독서 토론과 글쓰기



서혁 교과서편

교과서 전 지문의 완벽 분석
및 활동 풀이

—
핵심을 꿰뚫는 교과서 연구
실력을 기르는 확인 문제

—
다양한 단계별 문제로
탄탄한 내신 대비

이 책의 구성과 특징

교과서 완벽 분석 & 핵심 정리



[단원의 길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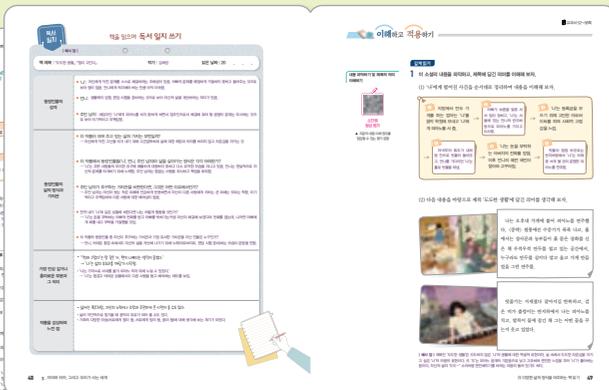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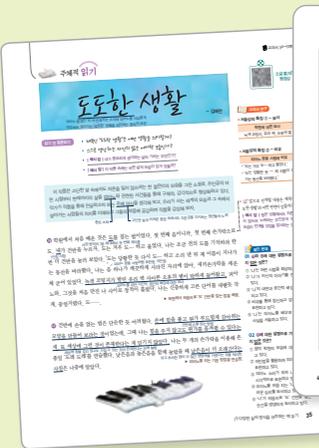
대단원 핵심 질문과 길잡이 글을 통해 대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확인하고, '더 생각해 보기'를 통해 배경지식을 활성화하며 대단원 학습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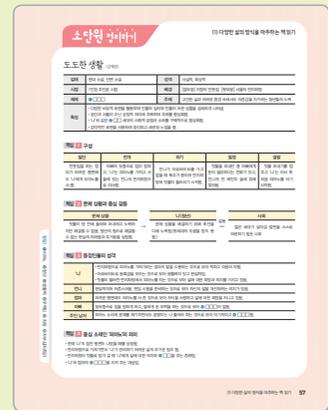
[소단원 도입]

'질문으로 생각 열기'를 통해 소단원에서 다룰 내용에 대한 생각을 환기하고, '이어질 독서·독서 토론·글쓰기 활동'을 통해 소단원 활동 흐름을 미리 파악하며 소단원 학습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소단원 학습]



[소단원 정리하기]



본문 학습: 교과서 지문을 상세히 분석하였으며, 핵심 내용을 정리한 '교과서 연구'와 '교과서 날개 질문'에 대한 예시 답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확인 문제'를 풀어 지문에 대한 이해 정도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활동 풀이: 활동 유형과 예시 답, 추가 설명 등을 참고하여 교과서 활동을 스스로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소단원의 중요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빈칸을 채워가며 스스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차례

I

독서 토론과 글쓰기의 이해

(1) 독서 토론과 글쓰기의 특성	09
(2) 독서 토론과 글쓰기의 방법	12
대단원 종합 문제	26

II

자아와 타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계

(1) 다양한 삶의 방식을 마주하는 책 읽기	31
• 도도한 생활 _김애란	
(2)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한 독서 토론	62
가 평상이 있는 국숫집 _문태준	
나 우리 시대의 관계 맺기 _박병기	
• 리바운드 _권성희, 김은희, 장향준 각본	
(3) 가치 있는 삶을 지향하는 글 쓰기	85
가 되어야 하는 나보다 되고 싶은 나를 본다 _최인철	
나 내가 잃어버린 나무들 _나희덕	
대단원 종합 문제	106



III

사유하며 살아가는 삶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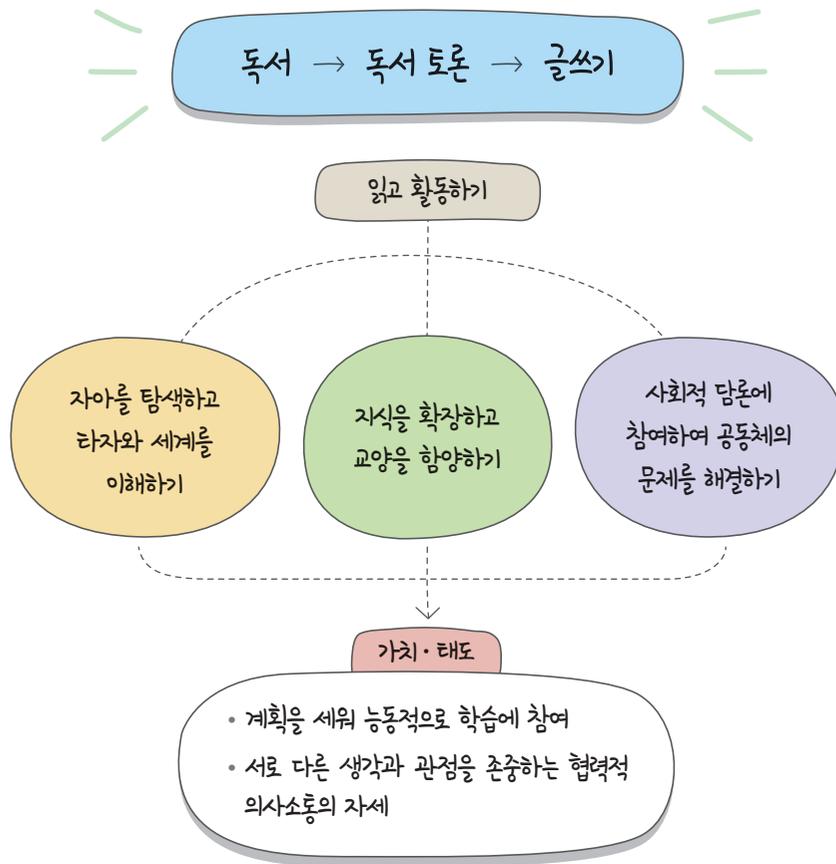
(1)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책 읽기	115
• 장하석의 과학, 철학을 만나다 _ 장하석	
(2) 정보의 비판적 수용을 위한 독서 토론	141
•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사고의 중요성 _ 한스 로슬링 외 지음, 이창신 옮김	
(3) 새로운 정보를 활용하는 글 쓰기	161
• 순간의 빛을 포착하라 _ 박우찬	
대단원 종합 문제	180

IV

함께 만들어 가는 사회

(1) 사회 현상을 탐구하는 책 읽기	189
• 공정하다는 착각 _ 마이클 샌델 지음, 함규진 옮김	
(2)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독서 토론	219
•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두 가지 정책 _ 홍중호	
(3) 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글 쓰기	243
• 밤을 잊은 도시, 24시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할까 _ 최성용	
대단원 종합 문제	267

정답과 해설



이 단원의 독서 토론과 글쓰기 활동을 통해

- 개인이나 공동체의 관심사를 고려하여 읽을 책을 주도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책을 읽으며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책의 내용을 주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 서로 다른 관점을 존중하는 협력적 자세로 독서 토론을 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 독서 토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쓰기 목적, 독자, 매체를 고려하여, 자신의 관점과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다.
- 독서 토론과 글쓰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독서, 독서 토론, 글쓰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비판적 ·
창의적
사고 역량

의사소통
역량

자기 성찰 ·
계발 역량

I

독서 토론과 글쓰기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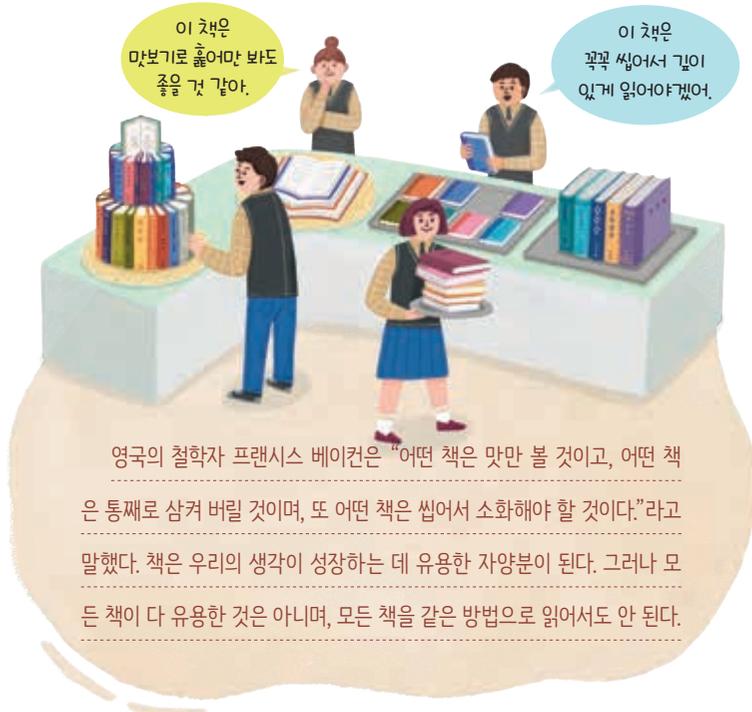
① 독서 토론과 글쓰기의 특성

② 독서 토론과 글쓰기의 방법





책을 읽고 생각과 감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은
왜,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의 깊이는 어떤 책을 어떻게 읽으며, 이해와 감상을 어떻게 공유하고 소통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자신에게 필요한 책을 선택하여 읽고 대화, 토의, 토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을 나누고 이를 글로 정교하게 표현하는 활동은, ^{생각을 나누는 방법}책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뿐 아니라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 준다. 나아가 삶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독서 토론과 글쓰기의 의의 ①}관점과 ^{독서 토론과 글쓰기의 의의 ②}생각의 차이를 ^{독서 토론과 글쓰기의 의의 ③}존중하는 ^{독서 토론과 글쓰기의 의의 ④}성숙한 인간으로의 성장을 이끈다.



더 생각해 보기

- 자신에게 인상 깊었거나 후회가 되었던 독서 토론과 글쓰기 경험을 떠올려 보자.

인상 깊었던 경험	후회가 되었던 경험
예시 답 『호밀밭의 파수꾼』(제롬 데이비드 샬린저)을 읽고 토론하면서 혼란과 방황의 시간이었던 나의 중학교 시절이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시 답 나의 진로나 흥미를 고려하지 않고, 분량이 적고 쉽게 읽히는 책만 골라 읽었더니 오히려 책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 자신의 삶에 의미 있는 독서 토론과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할지 적어 보자.

예) 나와 공동체의 관심사를 고려하여 책을 읽고, 관심사가 유사한 친구들과 읽은 책의 내용에 관한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글을 써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 예시 답 | • 나와 공동체의 관심사를 고려하여 책을 신중하게 선정하고, 독서 일지를 꾸준히 작성하며 읽는다.
• 관심사가 유사한 친구들과 책을 선택해 함께 읽고, 그 내용에 관해 대화나 토의, 토론 등을 하며 생각을 적극적으로 나눈다.
• 토론 후에 자기 생각 등을 글로 정리하고,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

(1) 독서 토론과 글쓰기의 특성

● 독서 활동의 이해

독자는 독서 활동을 함으로써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나 다른 사람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화제나 현상, 사건에 대한 여러 사람의 관점과 견해에 대한 탐구도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독자는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학습하고, 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주체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 독서 토론과 글쓰기 활동의 특성

독서는 본질적으로 의사소통 행위이다. 독자는 책을 매개로 필자와 소통할 뿐 아니라 다른 독자와도 소통한다. 특히 책을 읽고 다른 독자들과 독서 토론을 하거나 글을 써서 공유하는 과정을 거치면 다양한 관점에서 책의 내용을 해석하고 수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독자는 책과 그 책이 보여 주는 타자 및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심화하고 확장해 나간다. 또 서로의 관점과 생각의 차이를 견주는 과정에서 보다 주체적으로 자신만의 관점과 생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다.

● 독서 토론과 글쓰기 활동의 지향점

함께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누며 글을 써서 공유하는 활동은 독자가 주체적인 견해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이 활동을 통해 자아 탐색과 타자 및 세계에 대한 이해, 지식 확장과 교양 함양, 사회적 담론 참여와 공동체 문제 해결 등을 실현할 수 있다. 독자는 독서 토론과 글쓰기의 다양한 목적을 실천하며 자기 삶의 주체이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독서 토론과 글쓰기 활동은 독자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며 타인과 소통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삶과 세상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확장하여 실제 삶 속의 다양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가는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게 해 준다.

독서 토론의 효과

- 책 이해의 심화: 책에 대한 여러 사람의 관점과 견해를 접함으로써 책을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 사고력 향상: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의사소통 능력 향상: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공동체 의식 함양: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공동체의 담론에 참여할 수 있다.

확인 문제

01 다음 문장에서 올바른 말을 골라 ○표를 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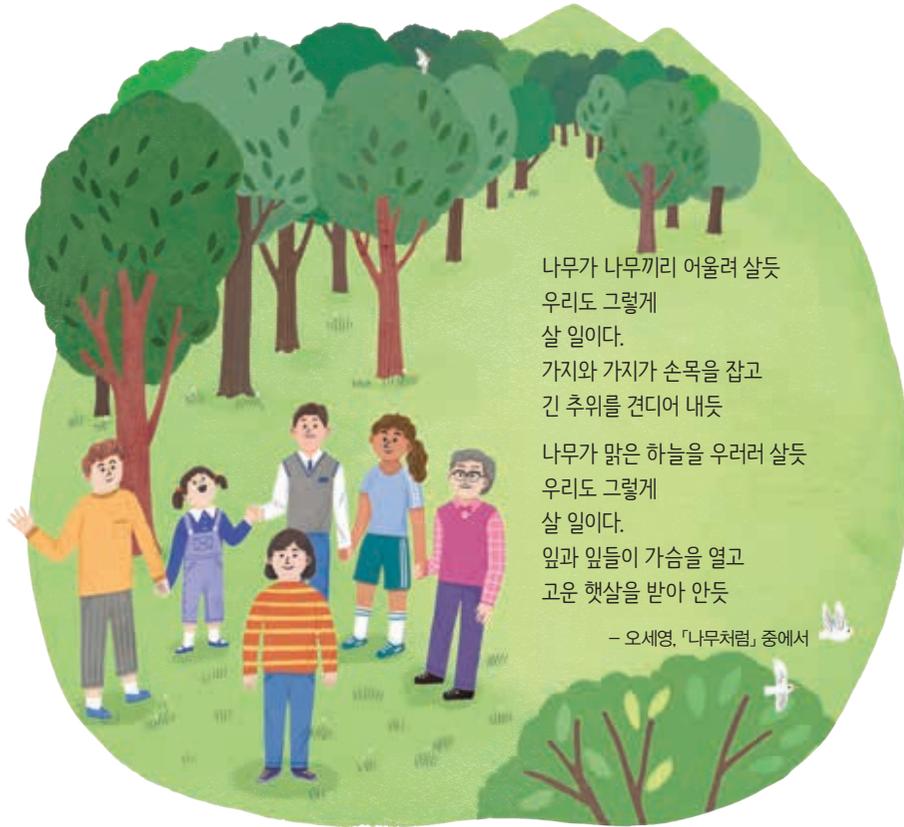
- (1) 독서는 본질적으로 (의사소통 , 개별적 사고) 행위이다.
- (2) 독서 토론을 하고 글을 써서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책을 (다양한 관점 , 일관된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다.

02 독서 토론과 글쓰기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학습하는 것
- ②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
- ③ 자신의 관심사와 진로에 대해 탐색하는 것
- ④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
- ⑤ 자기 삶의 주체이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



자아와 타자, 그리고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서 왜 중요할까?



나무가 나무끼리 어울려 살듯
우리도 그렇게
살 일이다.
가지와 가지가 손목을 잡고
긴 추위를 견디어 내듯
나무가 맑은 하늘을 우러러 살듯
우리도 그렇게
살 일이다.
입과 입들이 가슴을 열고
고운 햇살을 받아 안듯

- 오세영, 「나무처럼」 중에서

인간은 독립적인 개체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일원으로 타자와 세계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고유한 자아를 가진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존재 타자 및 세계와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회적인 존재이다. 마치 나무와 나무가 모여 숲과 같은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듯이, 자아는 타자와 세계 속에서 갈등과 화해를 경험하며 더 큰 고난도 함께 극복해 나간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인간과 삶에 대한 책을 읽고 자신이 깨달은 바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타인과 세계에 대한 경험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더불어 살아갈 자신의 삶과 가치관에 대한 성찰 힘도 얻게 된다.

자아와 타자, 세계의 관계
자아: 나 자신(주체)
타자: 다른 사람이나 대상
세계: 자아와 타자가 모여 이루어진 공간이나 사회



더 생각해 보기

- 나의 흥미나 관심사를 고려하여, 이 단원을 통해서 내가 더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나의 흥미나 관심사

예) 평소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에 관심이 많았다.

내가 더 알고 싶은 것

예) 바람직한 관계는 어떤 모습일지 알고 싶다.

(1)

다양한 삶의 방식을 마주하는 책 읽기

- | 학습 목표 |**
- 개인이나 공동체의 관심사를 고려하여 읽을 책을 선정하고, 질문을 생성하고 주체적으로 해석하며 책을 읽을 수 있다.
 - 책 속의 인물이나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비평하고, 자아와 타자 또는 자아와 세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질문으로
생각 열기



소단원 도입
동영상

▲ 조각상의 모습에 담긴 의미를 삶의 가치와 연관지어 떠올려 보게 하는 애니메이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어떤 삶들이 모여 있을까?



▲ 알베르토 자코메티, 「가리키는 사람」

연약한 듯 가느다랗지만 곧게 서 있는 사람. 왼손을 들고 오른손으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 무엇을, 왜 가리키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

만약 왼손으로 다른 사람들을 부르고 그의 시선과 오른손은 그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향해 있다고 해석한다면, 그는 누구를 부르고, 어디로 가고자 하는 것일까?

해석은 작품을 보는 관객의 몫이다.

| 「가리키는 사람」이 왼손으로 부르는 사람은 누구이고, 오른손으로 가리키는 곳은 어디일지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 예시 답 | 왼손으로 부르는 사람은 자신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 즉 삶의 동반자인 친구나 연인인 것 같다. 또 오른손으로 가리키는 곳은 자신이 바라보는 방향과 같으므로 자신이 부르는 사람과 함께 가고자 하는 지향점이나 함께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점이라고 생각한다.

|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 세상에는 어떠한 삶의 가치들이 있는지 말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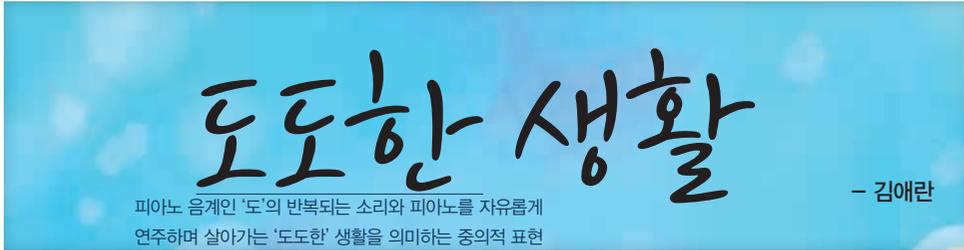
| 예시 답 | 친구들의 해석이 비슷한 것도 있었지만, 서로 다른 것들도 많았다. 그리고 세상에는 열정을 가지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삶,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삶,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 등 수없이 많은 삶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어질 독서 활동

- 개인이나 공동체의 관심사를 고려하여 읽을 책 선정하기
- 질문을 생성하고 주체적으로 해석하며 읽기
- 독서 일지를 작성하며 독서 내용 정리하기
- 자아를 탐색하고 타자와 세계를 이해하기

주체적 읽기



소설 즐거리 동영상

교과서 연구

• 서술상의 특징 ① - 묘사

학원에 대한 묘사

녹색 코팅지, 유리 벽, 오후의 별

• 서술상의 특징 ② - 비유

피아노 음을 사람에 비유

- '도는 겨우 도— 하고 울었다.'
- '도는 당황한 듯 ~ 제 이름이 지나가는 동선을 바라봤다.'

읽기 전 질문하기

- 제목인 '도도한 생활'은 어떤 생활을 의미할까?
-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삶은 어떠한 모습인가?
- | 예시 답 |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 | 예시 답 | 이 작품 속에는 어떤 삶의 모습이 담겨 있을까?

이 작품은 고단한 삶 속에서도 자존을 잃지 않으려는 한 젊은이의 모습을 그린 소설로, 주인공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삶을 피아노와 관련된 사건들을 통해 구체적,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작가가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을 생각해 보고, 우리가 사는 세계의 모습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며 작품을 감상해 보자.

중심 소재

고단한 삶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존감을 지키려는 청년들의 노력

앞으로 전개될 내용은 제목인 '도도한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 예시 답 | 힘든 상황에서도 자존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주인공의 '도도한' 모습이 전개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 같다.

가 학원에서 처음 배운 것은 도를 짚는 법이었다. 첫 번째 음이니까, 첫 번째 손가락으로

서양 음악의 7음 체계에서 첫 번째 계이름
 도, 내가 건반을 누르자, 도는 겨우 도— 하고 울었다. 나는 조금 전의 도를 기억하려 한 인칭 시점 번 더 건반을 눌러 보았다. '도는 당황한 듯 다시 도— 하고 소리 낸 뒤 제 이름이 지나가는 동선을 바라봤다, 나는 『』: 피아노 음을 사람처럼 표현함. 의인법 음 하나가 깨끗하게 사라진 자리에 앉아, 새끼손가락을 세운 채 굳어 있었다. 피아노를 치던 시간적, 공간적 배경에 대한 묘사 녹색 코팅지가 발린 유리 벽 사이론 오후의 별이 탁하게 들어왔고, 피아노와, 그것을 처음 만진 나 사이로 정적이 흘렀다. 나는 신중하게 고른 단어를 내뱉듯 작게, 중얼거렸다. 도…….

▶ 학원에서 처음으로 '도' 건반을 짚는 법을 배움.

나 건반에 손을 얹는 법은 단순한 듯 어려웠다. 건반에 손을 얹는 방법 손에 힘을 풀고 뭔가 부드럽게 감아주는 모양을 만들어 보라는 것이었는데, 그때 나는 힘을 주지 않고도 뭔가를 움켜질 수 있다는

게, 또 세상에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나는 두 개의 손가락을 이용해 세상에 힘을 주지 않고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에 놀람. 종일 '도레 도레'를 연습했다. 낮고 초라한 음이 더 짙긴 생명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함. 낮은음과 높은음을 함께 눌렀을 때 낮은음이 더 오래간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았다.

▶ 피아노를 치는 기본 방법을 연습함.



확인 문제

0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다.
- ②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 ③ '나'의 내면과 공간적 배경이 대비되고 있다.
- ④ 비유를 통해 참신하고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나'는 피아노를 배우며 알게 된 사실을 서술하고 있다.

02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음악 학원의 모습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 ② 의인법을 활용하여 피아노 소리를 표현하고 있다.
- ③ 피아노 소리가 퍼져 나가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④ 피아노를 처음 치는 '나'의 당황스러운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
- ⑤ '나'가 처음으로 '도' 건반을 짚는 순간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 '도'의 특징

- 음계의 첫 번째 음이자 가장 낮은 음
- 완고하고 편안한 울림을 가짐.
- 다른 음의 위치를 찾는 기준이 됨.

• 동네 음악 학원의 특징

- '그곳에선 어설피게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플루트도 가르치고, 웅변까지 지도했다.'
- '어쨌든 헨델이 없는 헨델 방이었고, 리스트가 없는 리스트 방이었다.'



전문적으로 음악을 가르치는 곳이 아님.

📖 '나'가 '도'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예시 답 | 덩치 크고 내성적인 악기인 피아노가 처음 내는 소리인 '도'는 완고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며, 다른 건반의 위치를 찾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 피아노 '음'을 사람에 비유한 표현이 주는 효과는 무엇일까?

▶ 예시 답 | 감각적 표현으로 유머와 생동감을 느끼도록 한다.

확인 문제

03 ㉓에 나타난 음악 학원의 특징으로 보아, '나'의 동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음악적 교육열이 높은 곳
- ② 입시 교육이 최우선인 곳
- ③ 주입식 교육 대신 자기주도 학습을 중시하는 곳
- ④ 여러 재능을 동시에 개발하기 위한 교육 여건을 갖춘 곳
- ⑤ 교육에 대한 희망은 있으나 제대로 교육하기에는 부족한 곳

04 ㉑~㉓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나'가 '도'의 울림을 좋아하는 이유이다.
- ② ㉒: '도'는 '나'가 가장 좋아하는 음이기 때문이다.
- ③ ㉓: 어설피게 가르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④ ㉔: 음악 학원의 특징을 해학적으로 표현하였다.
- ⑤ ㉕: 피아노 음에 대한 인상을 사람에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㉑ 피아노 건반의 모양은 똑같았다. 그것은 희거나 검었고, 동일한 크기와 질감을 갖고 있었다. 나는 도의 위치를 자주 잊었다. 피아노 건반에 대한 묘사 그것이 레가 아니라 도라는 것을, 미가 아니라 파

라는 것을 먼저 보기 전에 확신할 수 없었다. 내가 찾는 도는 왼쪽 가장자리 건반으로부터 스물네 손가락 떨어진 곳에 있었다. '도' 건반의 위치 건반 위에서 길을 잃을 때마다 1부터 24까지의 숫자를 일일이 세어 봐야 했다. 그렇게 도를 찾아낸 뒤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 도를 다시 치는 일일 수밖에 없었다. 「나는 덩치 크고 내성적인 악기가 처음으로 낸 소리, ㉑ 완고하고 편안한 그 도—의 울림을 좋아했다. 다행히 도를 찾고 나면 레를 짚기가 수월했다. '도'는 다른 건반의 위치를 찾는 기준이 됨. 레는 도 바로 옆에 있었다. 미는 레 옆이고, 파는 미 다음이니까, ㉒ 일단 도를 찾는 것이 중요했다. ▶ 피아노 건반의 특징과 '나'가 도를 좋아하는 이유

㉒ 연습실 문에는 죽은 음악가의 이름이 써어 있었다. 나는 베토벤실에 앉아 '도레 도레' 베토벤, 리스트, 헨델 등 유명한 음악가의 이름을 따서 연습실의 이름을 지음. 를 연습했다. 리스트 방에서는 '도레미'를, 헨델 방에서는 '도레미파솔'을 연주했다. 두 손

가락만 사용했을 땐 '이만하면 할 만하네.' 싶었고, 세 손가락을 움직였을 땐 '시시하다.' 자만했고, 다섯 손가락을 써야 했을 땐 '이거 어려워서 못 해 먹겠다.' 소리쳤다. 내가 살

던 시골 마을엔 음악 학원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곳에선 어설피게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플루트도 가르치고, 웅변까지 지도했다. 교육열이 높은 곳이 아님을 알 수 있음. 음악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원이 아니었음을 의미함. 다행히 바이올린이나 플루트를 신청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㉓ 만일 배우고자 했다면 학원에서 먼저 말했으리라. 동네에서 바이올린을

결 줄 아는 아이는 음악 학원 원장의 딸 한 명뿐이었다. 그 애는 학예회에 날개 달린 원피스를 입고 나와, 초등학생이 듣기에도 참을 수 없는 연주를 했다. 연주 실력과는 상반되는 외양을 묘사 그 애의 형편없는 연주 형편없는 연주 실력 를 들으며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때리고 싶다는 충동에 시달렸다. 음악 학원에서 왜 웅

변을 가르쳤는지는 모르겠다. 웅변은 음악이 아닌데. 그래도 수강생은 있는 듯했다. 교내 웅변대회를 앞둔 학생이나, 소극적인 성격 탓에 부모 손에 끌려온 아이들이었다. 연습실에서 내가 친 음이 정갈하게 사라지는 느낌을 즐기고 있을 때면, 어디선가 찢어질 듯 “나

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외침이 들려오곤 했다. 피아노 음과 웅변하는 소리의 대비 베토벤은 귀가 먹어 그 소리를 못 들었

겠지만. 나는 두 번째로 누군가를 때리고 싶다는 욕구에 시달렸다. 어쨌든 ㉔ 헨델이 없는 헨델 방이었고, 리스트가 없는 리스트 방이었다. 나는 그들이 누구지도 몰랐다. ▶ 이것저것 어설피게 가르쳤던 동네 음악 학원

음악 학원의 특징을 해학적으로 표현함.

㉕ 연습이 지루할 때면 각 소리의 표정을 그려 봤다. ㉑ 레는 결눈질하는 느낌이고, 솔은 까치발 선 인상을 줬다. 미는 시치미를 잘 떼고, 파는 솔보다 낮지만 쾌활할 것 같았다. 피아노 음에서 느낀 인상을 사람에 비유하여 표현함. → 참신하고 생동감 있는 느낌을 줌.

나는 다섯 음에 적응해 갔다. 피아노는 건반 자체가 아닌 자기 내부의 어떤 것을 ‘때려서’ 피아노 건반에 연결된 해머가 피아노 줄을 때리면 줄이 진동하여 소리를 낸. 음을 만든다는 것도 이해했다. 높은음일수록 빨리 사라진다는 것도, 음마다 자기 시간을

따로 갖고 있다는 것도 말이다. 그러니 각 음이 모여 음악이 된다는 건, 여러 개의 시간이 만나 벌어지는 어떤 일일지도 몰랐다. ▶ 피아노의 각 음에 대한 '나'의 인상

책 제목 | 『도도한 생활』, 『침이 고인다』

작가 | 김애란

읽은 날짜 | 20 . . .

등장인물의
성격

- '나':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주체성이 있음. 아빠의 문제를 매정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주는 것으로 보아 정이 많음. 언니에게 의지해야 하는 만큼 아직 미숙함.
- 언니: 생활력이 강함. 편입 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삶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음.
- 주인 남자: 세입자인 '나'에게 피아노를 치지 못하게 하면서 집주인으로서 해결해 줘야 할 공평이 문제는 무시하는 것으로 보아 이기적이고 무책임함.

등장인물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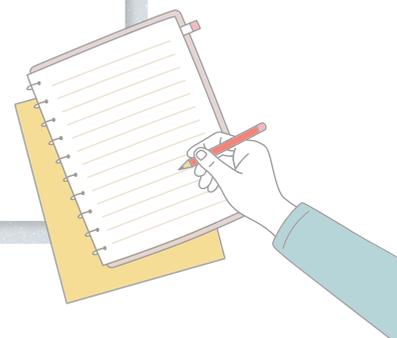
- 이 작품이 보여 주고 있는 삶의 가치는 무엇일까?
→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이겨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삶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자존감을 지키는 것
- 이 작품에서 등장인물들('나', 언니, 주인 남자)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각각 어떠한가?
→ '나'는 주변 사람들의 무리한 요구에 매몰차게 대응하지 못하고 다소 유약한 모습을 지니고 있음. 언니는 현실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함. 주인 남자는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함.
- 주인 남자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비판한다면,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 주인 남자는 자신이 받는 작은 피해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큰 피해를 모르는 척함.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음.
- 만약 내가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 '나'는 돈을 부탁하는 아빠의 전화를 받고 아빠를 뺏아주는 커녕 자신이 해결해 보겠다고 전화를 끊는데, 나라면 아빠에게 화를 내고 부탁을 거절했을 것임.
- 이 작품의 등장인물 중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가장 유사한 가치관을 지닌 인물은 누구인가?
→ 언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아르바이트, 편입 시험 준비)하는 모습이 본받을 만함.

가장 인상 깊거나
흥미로운 부분과
그 의미

- "‘원래 그렇다’는 말 같은 거, 왠지 나쁘다는 생각이 들었다."
→ '나'는 삶의 부조리를 깨닫기 시작함.
- '나는 가까스로 사내를 옮겨 피아노 의자 위에 누일 수 있었다.'
→ '나'는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돕고 배려하는 태도를 보임.

작품을 감상하며
느낀 점

- 삶에는 폭우처럼, 자신의 노력이나 소망과 무관하게 큰 시련이 올 수도 있다.
- 삶이 극단적으로 힘들 때 음악이 위안이 되어 줄 수도 있다.
- 가족의 다양한 모습(서로에게 힘이 됨, 서로에게 짐이 됨, 꿈이 됨)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깊게 읽기

내용 파악하기 및 제목의 의미 이해하기



소단원
형성 평가

▲ 지문의 내용 이해 정도를 점검할 수 있는 평가 문항

1 이 소설의 내용을 파악하고, 제목에 담긴 의미를 이해해 보자.

(1) '나'에게 벌어진 사건을 순서대로 정리하며 내용을 이해해 보자.

1 지방에서 만두 가게를 하는 엄마는 '나'를 음악 학원에 보내고 '나'에게 피아노를 사 줌.

2 아빠가 보증을 잘못 서서 집이 망하고, '나'는 서울에 있는 언니의 반지하 방으로 피아노를 가지고 이사함.

3 '나'는 등록금을 모으기 위해 고단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회적 고립감을 느낌.

4 저녁부터 폭우가 내려 방 안으로 빗물이 들어오고, 언니를 기다리던 '나'는 홀로 빗물을 퍼냄.

5 '나'는 돈을 부탁하는 아버지의 전화를 받음. 이후 언니의 예전 애인이 찾아와 고구라집.

6 빗물이 점점 차오르는 반지하방에서 '나'는 이제 못 쓰게 될 것이 분명한 피아노를 연주함.

(2)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제목 '도도한 생활'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자.



나는 오후내 가게에 붙어 피아노를 연주했다. <중략> 짐통에선 수증기가 푹푹 나고, 흠에서는 장사꾼과 농부들이 흠 문은 장화를 신은 채 우적우적 만두를 씹고 있는 공간에서, 누구라도 만두를 삼키다 말고 울고 가게 만들었을 그런 연주들.



빗줄기는 거세졌다 잦아지길 반복하고, 검은 비가 출렁이는 반지하에서 나는 피아노를 치고, 발목이 물에 잠긴 채 그는 어떤 꿈을 꾸는지 웃고 있었다.

| 예시 답 | 제목인 '도도한 생활'은 도도하지 않은 '나'의 생활에 대한 역설적 표현이자, 힘든 삶 속에서 도도하게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하는 '나'의 마음의 표현이다. 또 '도'는 피아노 음계의 기본음으로 낮고 고요하며 편안한 느낌을 주어 '나'가 좋아하는 음이다. 자신의 삶이 '도도—' 소리처럼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 있기도 하다.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학원에서 처음 배운 것은 도를 짚는 법이었다. 첫 번째 음이니까, 첫 번째 손가락으로 도. 내가 건반을 누르자, 도는 겨우 도—하고 울었다. 나는 조금 전의 도를 기억하려 한 번 더 건반을 눌러 보았다. 도는 당황한 듯 다시 도—하고 소리 낸 뒤 제 이름이 지나가는 동선을 바라봤다. 나는 음 하나가 깨끗하게 사라진 자리에 앉아, 새끼손가락을 세운 채 굳어 있었다. 녹색 코팅지가 발린 유리 벽 사이론 오후의 별이 탁하게 들어왔고, 피아노와, 그것을 처음 만진 나 사이로 정적이 흘렀다.

㉡ 연습이 지루할 때면 각 소리의 표정을 그려 봤다. 레는 결눈질하는 느낌이고, 솔은 까치발 선 인상을 줬다. 미는 시치미를 잘 떼고, 파는 솔보다 낮지만 쾌활할 것 같았다. 나는 다섯 음에 적응해 갔다. 피아노는 건반 자체가 아닌 자기 내부의 어떤 것을 '때려서' 음을 만든다는 것도 이해했다. 높은음일수록 빨리 사라진다는 것도, 음마다 자기 시간을 따로 갖고 있다는 것도 말이다. 그러니 각 음이 모여 음악이 된다는 건, 여러 개의 시간이 만나 벌어지는 어떤 일일지도 몰랐다.

㉢ 만뎃집을 했던 엄마가 어떻게 피아노를 가르칠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없다. 욕심이거나 뭔가 강요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 엄마는 배우이 짧았고, 자신의 교육적 선택에 늘 자신감을 갖지 못했다. 다만 그때 엄마는 어떤 '보통'의 기준들을 따라가고 있었으리라. 놀이공원에 가고, 엑스포에 가는 것처럼, 어느 시기에는 어떠한 것을 해야 한다는 풍문들을 말이다.

㉣ 나는 오후내 가게에 붙어 피아노를 연주했다. 울림 폭을 크게 해 주는 오른쪽 페달을 밟고, 멧을 부려 「소녀의 기도」나 「아드린느를 위한 발라드」와 같은 곡을 말이다. 짐통에선 수증기가 푹푹 나고, 홀에서는 장사꾼과 농부들이 흙 묻은 장화를 신은 채 우적 우적 만두를 찢고 있는 공간에서, 누구라도 만두를 삼키다 말고 울고 가게 만들었을 그런 연주를. 쉽고 아름답지만 촌스러워서 누구라도 가게 앞을 지나다 얼굴을 붉히게 만들었을, 그러나 좀 더 정직한 사람이라면 만두 접시를 집어 던지며 '다 때려치우라 그래!' 소리쳤을 그런 연주를 말이다.

㉤ 학원은 2년 정도 다녔다. 그사이 나는 『바이엘』 두 권을 떼고, 『체르니』와 『하농』에 입문했다. 체르니란 말은 이국에서 불어오는 바람 같아서, 돼지비계나 단무지란 말과는 다른 울림을 주었다.

나는 『체르니』를 배우고 싶기보단 체르니란 말이 갖고 싶었다.

엄마는 장사를 끝낸 뒤 작은방에 누워 피아노를 청했다. 나는 엄마의 발 박자에 맞춰 「따오기」나 「오빠 생각」을 연주했다. 허공에서 발 박자를 맞추던 엄마의 양말 앞코는 설거지물에 진하게 젖어 있었다. 그 발은 허공을 날아다니는, ㉠엄마의 젖은 마음을 한 조각 같았다.

0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처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나'는 점점 ㉡에서와 같이 인식이 확장된다.
- ② ㉡의 '학원'은 엄마가 '나'에게 제공해 준 교육의 공간이고, ㉢의 '만뎃집'은 엄마와 '나'의 생활의 공간이다.
- ③ ㉢의 '풍문'은, ㉠에서 '나'가 학원에 가서 피아노를 배우게 되는 계기에 해당한다.
- ④ ㉣에서 '나'가 들은 '다 때려치우라 그래!'라는 말은, ㉤에서 '나'가 피아노 학원을 2년 만에 그만두는 원인이 된다.
- ⑤ ㉣에서 '나'의 피아노 연주는 가게의 손님들도 들을 수 있는 반면, ㉤에서 '나'의 피아노 연주는 엄마만을 위한 것이다.

02 이 글의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손님들이 있을 때에도 가게에서 피아노를 연주했다.
- ② 장사를 끝낸 엄마가 요청하면 '나'는 엄마를 위해 피아노를 연주했다.
- ③ '나'는 피아노 연주를 즐겨 했지만 연주 실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었다.
- ④ '나'는 피아노를 잘 치고 싶었다기보다는 현재의 삶과는 다른 삶을 꿈꾸었다.
- ⑤ 엄마가 '보통'의 기준에 따라 피아노를 배워야 한다고 했을 때 '나'는 납득하지 못했다.

날개 질문 응용

03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안정된 삶에 대한 희망
- ②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 ③ 무능한 남편으로 인한 힘겨움
- ④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삶의 고단함
- ⑤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느끼는 여성으로서의 고통

단원의 마무리



스스로 평가하기

소단원	항목	평가
(1) 다양한 삶의 방식을 마주하는 책 읽기	「도도한 생활」 속 인물들이 보여 주는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인물이 타자 및 세계와 맺는 관계에 대해 생각하며 주제적으로 읽었는가?	😊 😐 😞
(2)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한 독서 토론	자아와 타자의 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글을 읽은 후, 바람직한 관계 맺기가 우리 삶에서 갖는 의미를 생각하며 대화하였는가?	😊 😐 😞
(3) 가치 있는 삶을 지향하는 글 쓰기	필자의 삶의 가치관이 드러난 다양한 글을 읽은 후,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담은 글을 작성하였는가?	😊 😐 😞

활동 점검하기

예시 답 |

- 다양한 인간상이나 삶의 가치를 다룬 책을 읽기 위해, 우리 모둠은 다양한 인간의 삶과 우리 사회의 모습을 잘 담고 있는지, 자아와 타자, 자아와 세계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지, 주인공의 삶의 모습을 평가하며 우리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지 등 을/를 고려하여 김애란의 소설집 『침이 고인다』에 수록된 「도도한 생활」 을/를 선정하였다.
- 삶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관점을 존중하며 독서 대화하는 활동에서, 나는 타자와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 (이)라고 생각하였다.
- 바람직한 관계에 관한 표어를 제작하는 모둠 활동에서 내가 부족했던 부분은 〈조건〉에 맞는 표어 창작하기 이며, 이를 짧은 글짓기 연습을 꾸준히 하는 방법으로 보완하겠다.
- ‘나의 미래 일기’에 담아낸, 내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는 타자를 돕는 삶을 실천하며 나의 자존감과 행복을 키우는 것 이다.
- 이 단원의 모둠 활동에서 가장 닦고 싶은 구성원은 ○○○ 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곳은일도 남에게 미루거나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하여 모둠원들이 즐겁게 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독서 대화



독서 대화를 통해 독자는 책에 대한 자신의 감상과 해석을 다른 독자와 공유함으로써 책의 내용에 대한 열린 시각을 갖추게 되며, 책의 의미와 가치를 더 깊이 내면화하게 된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독서 대화’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에게 큰 울림을 준 책을 소개하는 기쁨,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다른 독자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즐거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내적 성장을 느껴 보자.

1 자신이 읽은 책 중에서 자아와 타자, 세계를 이해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책을 한 권 고르고, 그 책을 소개하는 짤막한 글을 작성해 보자.

• 소개할 책: | 예시 답 | 장강명 『산 자들』

• 책을 소개하는 글에 들어갈 내용

책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 제목, 필자 • 책의 분야, 핵심 내용, 주제
독자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을 읽고 깨달은 점 • 책이 자신에게 갖는 의미 • 책이 자신에게 끼친 영향
독서 대화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을 소개하는 이유 • 책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점

• 책을 소개하는 글

| 예시 답 | 장강명의 연작 소설인 『산 자들』은 우리가 사는 세계, 그 속의 다양한 타자들이 서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대립과 갈등의 상황에서는 흔히 자신의 입장만 옳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여러 인물들의 다양한 관계를 살펴볼 수 있고, 그 결과 자아와 타자, 그리고 세계에 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다. 갈등 해결을 위한 화합과 공존이 요구되는 시대인 만큼 이 책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

활동 순서

- ① 책을 소개하는 글 쓰기
- ② 온라인 문서 공유 플랫폼에 책 소개하는 글 공유하기
- ③ 읽을 책을 선택한 후, 독서 계획을 세워 책 읽기
- ④ 온라인 문서 공유 플랫폼에서 독서 대화 나누기
- ⑤ 활동 평가하기

도움

독서 대화는 참여자가 공통으로 읽은 책을 바탕으로 전개된다. 따라서 자신이 읽은 책을 다른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소개하는 과정, 다른 사람이 소개한 책을 선택하여 읽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만듯집을 했던 엄마가 어떻게 피아노를 가르칠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없다. 욕심이거나 뭔가 강요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 엄마는 배움이 짧았고, 자신의 교육적 선택에 늘 자신감을 갖지 못했다. 다만 그때 엄마는 어떤 ‘보통’의 기준들을 따라가고 있었으리라. 놀이공원에 가고, 엑스포에 가는 것처럼, 어느 시기에는 어떠한 것을 해야 한다는 풍문들을 말이다. 돌이켜 보면 어릴 때 ㉡ 엑스포에 가고 박물관에 간 것이 그렇게 재밌었던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나를 엑스포에 보내 주고, 놀이공원에 함께 가 준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이 든다. 누구나 겪는, 평범한 유년의 프로그램 중 하나였을 뿐이지만, 무지한 눈으로 시대의 풍문들에 고개 끄덕였을, 김밥을 싸고 관광버스에 올랐을 엄마의 피로한 얼굴이 떠오르는 까닭이다. 이때쯤 내가 회전목마 위에서 비명을 지르는 동안,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벤치에 누워 있던 엄마의 모습이 떠오르곤 한다. ㉢ 신을 벗고 짧은 잠을 청하던 엄마의 얼굴은 도—처럼 낮고 고요했든가 그렇지 않았든가. 엄마를 따라 하느라, 피아노 의자 위에 누워 있던 나를 보고, 선생님은 라—처럼 놀랐든가 그렇지 않았든가.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일이 ‘엄마 100원만.’인 줄 알았던 때이긴 했지만, 나는 헨델이 없는 헨델의 방에서 음악을 했고, ㉣ 엄마는 베토벤같이 풀린 파마머리를 한 채 귀가 안 들리는 것처럼 만두를 빚었다. 마침 동네에 음악 학원이 생겼고, 엄마의 만두가 불티나게 팔리던 시절이라 가능했던 일인지도 모른다.

㉤ 엄마는 내게 피아노를 사 줬다. 읍내서부터 먼길길을 달려온 파란 트럭이 집 앞에 섰을 때, 엄마가 무척 기뻐했던 기억이 난다. ㉥ 세탁기도 냉장고도 아닌 피아노라니, 어쩐지 우리 삶의 질이 한 뼘쯤 세련돼진 것 같았다. 피아노는 노릇한 원목으로 돼, 학원에 있는 어떤 것보다 좋아 보였다. ㉦ 원목 위에 양각된 우아한 넝쿨무늬, 은은한 광택의 금속 페달, 건반 위에 깔린 레드 카펫은 또 얼마나 선정적인 빛깔이던지. 그것은 우리 집에 있는 가재들과 때깔부터 달랐다. 다만 좀 멋쩍은 것은 피아노가 가정집 ‘거실’이 아닌, 만두 가게 안에 놓인다는 사실이었다. 우리 가족은 생계와 주거를 한 건물 안에서 해결하고 있었다. 낮에는 방에 손님을 들이고, 밤에는 식구들이 이불을 펴고 자는 식으로 말이다. 피아노는 나와 언니가 쓰는 작은방에 놓였다. 안방은 주방을, 작은 방은 홀을 마주 보고 있었다.

수능형

01 이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건의 인과 관계를 밝혀 인물의 태도가 변화하는 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이야기 속 인물인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③ 이야기 속 인물인 서술자가 과거의 시점과 현재의 시점을 오가며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④ 인물들 간의 갈등 상황을 세부적으로 진술하여 특정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인물의 과거 행위에 대한 요약적 설명을 통해 인물이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계기를 드러내고 있다.

02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엄마’의 삶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자신의 본업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 ②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자식이 ‘보통’ 아이들처럼 자라기를 바랐다.
- ③ 자신의 열등감을 자식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것으로 해소하려 하였다.
- ④ ‘보통’의 삶을 살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선택에 자신감을 갖지 못했다.
- ⑤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보통’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

0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과거에 엄마가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나’에게 제공해 주었던 교육적 경험에 해당한다.
- ② ㉡: 힘겨운 삶에 지친 엄마의 모습을 낮은음인 ‘도’에 견주어 표현하고 있다.
- ③ ㉢: 자녀에게 ‘피아노’로 상징되는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엄마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나’는 ‘피아노’를 실용적인 가전용품인 ‘세탁기’나 ‘냉장고’와 대비되는, 삶의 질을 높이는 물건으로 여기고 있다.
- ⑤ ㉤: 대상의 외양을 다양한 비유적 표현으로 나타냄으로써 대상에 대한 ‘나’의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04~0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밖에선 공사음이 들려왔다. 며칠 전부터 주인집을 보수하는 소리였다. 문득 피아노를 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사 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일단 그런 마음이 들자,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다. 한 음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소리는 금방 사라져 아무도 모를 것이다. 나는 용기 내어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도—”

㉡ 도는 방 안에 갇힌 나방처럼 긴 선을 그리며 오래오래 날아다녔다. 나는 그 소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가슴속 어떤 것이 옆게 출렁여 사그라지는 기분이었다. 도는 생각보다 오래 도—하고 울었다. 나는 한 음이 완전하게 사라지는 느낌을 즐기려 눈을 감았다.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쿵쿵쿵쿵. 주먹으로 네 번이었다. 나는 얼른 피아노 뚜껑을 덮었다. 다시 쿵쿵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을 열어 보니 주인집 식구들이었다. 체육복을 입은 남자와 그의 아내, 두 아이가 나란히 서 있었다. 사내아이는 아빠와, 계집아이는 엄마와 똑 닮아 있었다. 외식이라도 갔다 오는지 그들 모두 입에 이쑤시개를 물고 있었다. 남자가 입을 열었다.

“학생, 혹시 좀 전에 피아노 쳤어?”

나는 천진하게 말했다.

“아닌데요.”

주인 남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친 거 같은데……?”

나는 다시 아니라고 했다. 주인 남자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내가 곰팡이 애길 꺼내자 “지하는 원래 그렇다.”라고 말한 뒤,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갔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피아노 옆에 기대어 앉았다. 그런 뒤 무심코 휴대 전화 폴더를 열었다. 휴대 전화는 번호마다 고유한 음이 있어 단순한 연주가 가능했다. 1번은 도, 2번은 레, 높은음은 별표나 영을 함께 누르면 되는 식이었다. ㉢ 더듬더듬 버튼을 눌렀다. 미 솔미 레도시도 파, 미 솔미 레도시도 레레레 미……. ‘원래 그렇다’는 말 같은 거, 웬지 나쁘다는 생각이 들었다.

㉣ 현관에서부터 물이 새고 있었다. 이물질이 잔뜩 섞인 새까만 빗물이었다. 그것은 벽지를 더럽히며 창틀 아래로 흘러내렸다. ㉤ 벽면은 검은 눈물을 똑똑 흘리는 누군가의 얼굴 같았다. 허둥지둥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는 한참 만에 전화를 받았다. 언니는 의외로 담담했다. 언니는 그런 적이 몇 번 있다고, 걸레로 닦아 내면 괜찮을 거라고 말한 뒤 바쁜 듯 전화를 끊었다. 언니가 그렇게 말해 주니, 섭섭하면서도 안심이 되는 기분이었다. 나는 멍하니 서 있다, 양말을 벗고 바지를 걷어 올렸다.

㉥ 아빠가 먼저 입을 열었다. 돈 얘기였다. 도와 달란 말은 없었지만, 도와 달란 말이었다. 나는 한참 동안 아빠 말을 경청했다. 얼추 내 등록금과 맞먹는 돈이었다. 나는 물에 불은 맨발을 땅바닥에 비벼 댔다. 그러곤 ‘어떻게 해 보겠다.’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

㉦ 빗물은 어느새 무릎까지 차 있었다. 나는 피아노가 물에 잠겨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저대로 두다간 못 쓰게 될 게 분명했다. ㉧ 순간 ‘쇼바’를 잔뜩 올린 오토바이 한 대가 부르릉—가슴을 긁고 가는 기분이 들었다. 오토바이가 일으키는 흙먼지 사이로 수천 개의 만두가 공기 방울처럼 떠올랐다 사라졌다. ㉨ 언니의 영어 교재도, 컴퓨터와 활자 디스크도, 아버지의 전화도, 우리의 여름도 모두 하늘 위로 떠올랐다 툭툭 터져 버렸다. 나는 피아노 뚜껑을 열었다. 깨끗한 건반이 한눈에 들어왔다. 건반 위에 가만 손가락을 얹어 보았다. 엄지는 도, 검지는 레, 중지와 약지는 미 파. 아무 힘도 주지 않았는데 어떤 음 하나가 긴 소리로 우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도—”

도는 긴 소리를 내며 방 안을 날아다녔다. 나는 레를 짚었다.

“레—”

사내가 자세를 틀어 기억 자로 놓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편안하게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하나둘 손끝에서 돌아나는 음표들이 녹녹했다.

“솔 미 도레 미파솔라솔……”

물에 잠긴 페달에 뭉뚱뚱 공기 방울이 새어 나왔다. 음은 천천히 날아올라 어우러졌다 사라졌다.

“미미 솔 도라 솔……”

사내의 몸에서 만두처럼 김이 모락모락 피어났다. 빗줄기는 거세졌다 잦아지길 반복하고, 검은 비가 출렁이는 반지하에서 나는 피아노를 치고, 발목이 물에 잠긴 채 그는 어떤 꿈을 꾸는지 웃고 있었다.

04 이 글의 인물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빠’는 ‘나’의 삶의 무게를 심화시키는 인물이다.
- ② ‘언니’는 ‘나’가 처한 문제 상황을 이미 여러 번 경험하였다.
- ③ ‘주인 남자’는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이중적 면모를 보인다.
- ④ ‘나’는 자신에게 닥친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⑤ ‘주인 남자’는 자신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무책임한 대응을 하고 있다.



문제의 의도, 정답 해설과 오답 풀이를 제공하는

정답과 해설

I 독서 토론과 글쓰기의 이해

(1) 독서 토론과 글쓰기의 특성

확인 문제

9쪽

01. (1) 의사소통 (2) 다양한 관점 02. ⑤

- 01** (1) 독서는 본질적으로 독자와 필자와의 대화를 전제로 하므로 의사소통 행위라 할 수 있다.
 (2) 독서 토론을 하고 글을 써서 공유하는 활동을 통해 책에 대한 여러 사람의 견해와 관점을 접함으로써 책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 02** 독자는 독서 토론과 글쓰기 활동을 통해 타자와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심화하고 확장하여 보다 주체적으로 자신만의 관점과 생각을 정립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자기 삶의 주체이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다.

소단원 평가 문제

11쪽

01. ③ 02. ② 03. ③ 04. 책을 읽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05. ④ 06. ⑤

- 01** 독서 활동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다른 사람이 비판할 수 없도록 자신만의 견해를 정립하기 위해 독서를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독자는 독서 활동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학습할 수 있다.
 ②, ④ 독서 활동은 특정한 화제나 현상, 사건에 대한 여러 사람의 관점과 견해를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새로운 성찰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⑤ 독자는 독서 활동을 함으로써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나 다른 사람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 02**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해서 바람직한 독서인 것은 아니다. 독서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읽을 때 독서의 효용과 가치가 극대화된다.
- 03** 책을 읽고 대화, 토의, 토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을 나누는 활동은 책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뿐 아니라, 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을 길러 주고 삶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며 관점과 생각의 차이를 존중하는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이끈다.

|오답 풀이| ② 독서 토론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조건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독서 토론을 하며 서로의 관점과 생각의 차이를 견주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자신만의 관점과 생각을 정립할 수 있다.

- ④ 독서 토론은 협력적 자세로 서로 다른 관점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활동이다.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는 것은 독서 토론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⑤ 독서 토론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정교화할 수 있지만, 자신의 가치관을 다른 사람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독서 토론을 하는 것은 아니다.

- 04** 독서 토론은 책을 읽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독서 토론의 의미를 포함하고 소통 과정을 바탕으로 독서 토론의 효과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상
독서 토론의 의미를 포함하고 독서 토론의 효과를 서술한 경우	중
독서 토론의 의미만 쓰거나 독서 토론의 효과만 간단히 언급한 경우	하

- 05** 선생님은 독서 토론과 글쓰기 활동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며 타인과 소통하는 기회임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실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독서 토론과 글쓰기 활동을 통해 독자는 자기 삶의 주체이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말하기와 글쓰기 실력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맥락상 자연스럽지 않다.

- ③ 독서를 통해 독자는 세상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⑤ 독서 토론과 글쓰기 활동을 한다고 해서 공동체의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06** 독서 토론은 각자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눔으로써 함께 성장하기 위한 활동이다. 자신의 생각이 아직 추상적이고 명료하지 않더라도 독서 토론을 통해 정교화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관점과 의견이 확실해질 때까지 다른 사람과 생각을 공유하지 않겠다는 자세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독서 토론 후 글쓰기 활동을 통해 토론 과정에서 떠올랐던 추상적이거나 명확하지 않던 생각들을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④ 관심사가 유사한 친구들과 대화함으로써 독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